중생 근기 살핀 부처님 설법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⑨ 수기설법(隨機說法)

"가섭이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의 산천, 계곡, 토지에 생겨난 초목과 수풀과 온갖 약초들이 그 종류에 따라 이름과 모양이 다르다 해도, 구름이 가득 끼어 온 세계를 뒤덮어서 한꺼번에 비를 뿌리면 그 혜택이 초목과 숲과 여러 약초에 골고루 미쳐지나니 크고 작은 여러 나무나 풀, 약초의 크기에 따라 제가끔 비를 맞아, 한 구름이 내린 빗물을 흡수 각각 생장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나니, 비록 한 땅에 나며, 한 비에 젖어도 여러 초목이 자라는 것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가섭이여, 알아라. 여래 또한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하늘에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을 내어 인간과 천상, 아수라에까지 두루 들리게 하는 것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 뒤덮는 것과 같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나는 여래 · 응공 · 정변지 · 명행족 · 선서 · 세간해 · 무상사 · 조어장부 · 천인사 · 불세존이니, 제도 받지 못한 자를 제도하며, 알지 못한 자를 알게 해주며, 편안하지 못한 자를 편안하게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자를 열반을 얻게 하리라. 지금 세상이나 다음 세상을 사실 그대로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며, 일체를 보는 자며, 길을 아는 자며, 길을 열어주는 자며, 길을 말해 주는 자이니, 너희 인간과 천상, 아수라 등은 법을 듣기 위해 모두 여기로 오라.' 고 하나니, 그때 무수한 천만 억 중생이 부처님 처소로 찾아와 설하는 법 듣느니라.

여래는 어느 때나 모든 중생들 근기의 우열과 부지런히 정진하고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낱낱이 살펴, 그 능력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이 한량없어, 모두를 기쁘게 해 좋은 이익 얻도록 하느니라. 중생들이 법을 듣고 현세에서 편안하며, 죽은 뒤엔 좋은 곳에 태어나, 도로써 즐거움을 누리며, 또한 법을 듣게 되어, 모든 장애 떠나 여러 법 중에서 제각기 능력 따라 차츰 도에 들게 되나니, 큰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려, 꽃과 나무 풀과 숲 그리고 온갖 약초들이 종류에 따라 넉넉히 비에 젖어 자라나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약초유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다. 구름이 비를 내려 초목, 수풀, 약초가 자라게 하듯이 부처님이 온갖 법을 중생들에게 근기에 맞게 설하여 제도하고 안락을 누리게 한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수기설법(隨機說法) 혹은 대기설법(對機說法)이라 한다. 이 말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해주고 기회를 봐서 법을 설해준다는 말이다. 보통은 근기(根機)를 상(上), 중(中), 하(下)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왔다. 근기는 한자로 '根器' 라고도 쓰는데 사람의 그릇됨을 나타내는 말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법화법문 곧 일승법(一乘法)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최상의 근기라고 한다. 소승을 하근기로 취급하면서 소승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일대시교를 교상판석(敎相判釋)하면서 천태는 5시설을 내세우며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로 경전을 설한 시기의 선후와 그 경전에 설해진 법문의 수준을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처음 설했다고 말하는 〈화엄경〉과 맨 뒤에 설했다고 하는 〈법화경〉이 경전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승(二乘)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법문이라는 것이다. 근기가 낮으면 알아듣기 어려워 못 듣는다고 한다. 그리하여 〈법화경〉을 설할 때 사부대중 오천 명이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사람은 성장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교과서 수준과 중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대학교의 교과서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경전을 판석(判釋)하면서 경전의 수준 차이를 등급으로 매겨 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교상판석인데 중국불교에서는 이를 매우 중요시 하였다. 물론 현대 불교학에 있어서 이 교상판석의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소승경전이 대승경전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궁극적으로 정직함 추구하는 것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⑨ 불망어계의 실천

오계 가운데 네 번째인 불망어계(不妄語戒)는 '망령된 말' 또는 '그릇된 말'의 절제와 관련이 깊다. 앞의 세 가지 계(불살생계, 불투도계, 불사음계)가 육체적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이 계는 언어적 행위에 대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불건전한 의도로 정신적 혼란이나 고통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형태의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맹렬히 비난하지만, 언어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폭력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언어적 행위이다. 이를테면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아첨하는 말, 흉보는 말, 깔보는 말, 거친 말, 헛된 말 등을 하는 것이다. 설령 상대방을 훈육하거나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계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말 가운데 특히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시 말해 거짓을 진실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켜서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은 속이려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말로써 다른 사람의 선(善)을 파괴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기만하려는 의도로 상대를 속이려는 말과 행의 의지이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가 완결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거짓 그 자체이며, 둘째는 기만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셋째는 기만하는 데 사용된 육체적 · 언어적 시도이며, 넷째는 메시지의 이해이다.

이 계를 어김으로써 야기되는 죄의식의 정도는 거짓을 말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익의 정도와 기만당한 이의 미덕에 따라 달라진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익이 커질수록 죄의 무거움도 증가한다. 거기에 미덕을 갖춘 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이에게 한 거짓말보다 더 큰 죄를 낳는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거짓말은 자신이나 타인,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진실이 가려지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이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자각하는 한편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것을 가르친다. 만약 거짓에 익숙해져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매사에 정직해야 하며, 어디서나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실을 말하는 습성은 정확하게 사고하는 습성에 달려 있다. 정확히 생각하고 정확하게 말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또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대할 때마다 그것이 가려져 있을지라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확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게 된다면, 그는 분노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불망어계를 실천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직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거짓인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직한 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⑨ 베다

구전된 인도 최고 문학

불교전승에 따르면, 싯다르타는 어린 시절 힌두경전인 베다(Veda)를 공부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베다는 그 전승과정에서 매우 폐쇄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이자 경전인 베다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거의 4천 년 전에 인도-아리아인들이 인도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빚어낸 종교문학이었다. 의례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이 베다문학은 처음부터 입으로 창작되고 입으로 전승된 완전한 구비문학(口碑文學)이다.

입을 통해 창작되고 전승되었지만, 이것은 문자를 모르던 대중들의 문학이나 그들의 언어로 창작된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이것은 사제계급이었던 브라흐만들의 창작이며 또한 그들 계급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인들의 문학이었다. 구전문학이었지만 대중에게 쉽게 전달될 수 없었던 문학이었다. 이런 점에서 구비문학이나 구전문학이 훨씬 대중적이라는 통상적 인식은 고대 인도의 문학에 적용할 수 없다.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기에 이 전문 사제들의 문학들은 더 폐쇄적으로 그 사제계급 사회에서만 유통될 수 있었다. 정보의 관리가 더 수월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베다문학의 유통과 관리의 주체였던 브라흐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베다문학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베다의 가계(家系) 혹은 계보(系譜)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베다' 라는 문학은 어떤 고대 인도사회의 사제계급 지식인들이 시적 감흥에 젖어 마구 신의 찬양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모든 브라흐만 전체가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브라흐만들은 자신들이 속해있는 어떤 특정한 베다문헌의 계보에 소속되어 그들에게만 전승되어 오던 베다만을 익혔던 것이다. 자신이 속하지 않았던 가계 혹은 다른 계보 속의 베다는 공부하지도 않았고, 익힐 수도 없었다. 베다 문학이라고 해서 모든 브라흐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오직 자신에게 속한 베다 문학만을 학습하고 전승했을 뿐이다. 따라서 베다 문학 전체는 다수의 특정 가계들이 대대로 전승해오던 문학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계 혹은 계보를 우리는 "샤카(śākhā)"라고 부른다.

여기 어떤 한 브라흐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가문이 옛날부터 리그베다만을 익혀왔던 호뜨리(Hotṛ) 사제였다면, 그의 아버지와 조상들도 동네 어디선가 큰 제사가 열리면 그곳에 불려가 사마베다나 야주르 베다를 암송하던 다른 사제들 가운데 섞여서 리그베다의 구절들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리그베다를 전승하는 가계라 할지라도, 각기 그 문헌을 암송하고 전승하는 방식이 달라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승방식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리그베다를 전문적으로 암송하는 브라흐만 사이에서도 그 문헌의 전승 방식에 따라 여러 계보(샤카)가 나뉘어 존재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브라흐만의 가문이 리그베다를 전승하던 샤깔라(Śākala)라는 학파(샤카)에 속해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브라만은 샤깔라 학파의 전승방식으로 리그베다를 공부해야할 것이다. 이 브라흐만이 사는 동네의 강 건너편에 리그베다를 전승하는 또 다른 학파가 있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바슈깔라(Bāṣkala) 학파가 존재했다면, 그는 자신의 자손이나 후학에게 강건너에 있는 리그베다 전승방식을 배우게 할 수는 없었다. 물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리그베다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소리내어' 기억하는 방식이 서로 달았다.

다시 말해 베다의 발음법에 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가계, 혹은 학파가 존재했던 것이다. 과거에는 리그베다 문헌을 전승하는 학파들이 수십여 개가 있어도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대동소이 했었다. 하지만 리그베다를 암송하면서 생기는 발음에 대한 견해만은 서로 달랐던 것이다. 리그베다는 철저하게 구전으로 전승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낭송 상태의 음성현상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베다 학파마다 쁘라띠샤카(prātiśākhya)라는 음성학적 규정집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소리에 대한 인도사람들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